



최명섭 / 임업연구원

# 산딸나무

과명 : 층층나무과  
 학명 : *Cornus kousa*  
 영명 : Korean Dogwood  
 한명 : 四照花  
 일명 : ゆまぼうし

▶ 산딸나무 전경



▼ 산딸나무 열매



**외국**에서 훌륭한 정원수로 인기를 끌고 있는 수종도 우리나라에서는 잡목(雜木) 취급을 받는 경우가 가끔 있다. 우리나라 중부 이남 야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산딸나무가 바로 그것. 이름없는 잡목취급을 받아 이 나무를 아는 사람조차 드문 실정이다.

그러나 서구에서는 국가원수나 저명인사들이 기념식수를 할 때 이 나무를 즐겨 선택하며(Dog Wood)라 하여 집에서 기르는 애견처럼 사랑하고 아낀다. 특히 하얀 꽃잎이 십자형으로 갈라져 마치 십자가를 연상시킬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나무로 만든 십자가에 못박혔다고 하여 기독교인들은 성스럽게 받들고 있기도 하다. 이 나무는 너무 단단하여 박달나무, 쇠박달나무라고 부르기도 한다.



▲산딸나무 꽃

## 1. 생태적 특성

중부 이남의 산야에서 자생하는 낙엽활엽 큰키나무로 수고 12m, 직경 50cm에 달하고 수직적으로 제주도 한라산에서 표고 1,800m까지 자라며 대부분은 표고 300~500m에서 분포한다. 가지가 수평으로 퍼지고 수피는 껍질이 벗겨져 모과나무 수피와 같고 매끈하며 아름답다. 추위에 견디는 힘이 강하고 음지에서 잘 견디며 토심이 깊고 적운한 토양과 비옥한 곳에서 생장이 좋다. 각종 공해에는 잘 견디나 건조한 곳에서는 생장이 불량하다.

## 2. 형태적 특성

잎은 마주 나며 계란형이고 끝부분은 점점 좁아지고 아래부분은 예리하다. 길이는 5~12cm, 넓이 3~7cm이다. 잎 뒷면은 회녹색으로 까실까실한 털이 뽁뽁하고 엽맥의 겨드랑이에 갈색 털이 많이 나 있다. 꽃은 전년에 자란 가지 끝에서 6월에 흰색으로 피며 백색포(白色苞)는 사방으로 퍼져서 나무 전체가 하얗게 뒤덮인 것 같이 보인다. 열매는 9~10월에

딸기 모양의 진분홍색으로 익고 직경 1.5~2.5cm로 단맛이 있어 새와 짐승이 매우 좋아한다. 경기도 광릉지역에 자라는 산딸나무는 꽃잎이 커 준산딸나무라 하고 제주도에 자생하는 것은 꽃잎이 좁아서 소리딸나무라고 부른다.

## 3. 조경수로서의 활용

높이 12m까지 자라는 이 나무는 우선 수형이 우산모양으로 미려하고 모과나무같은 줄기가 철따라 벗겨져서 관상가치를 다양하게 높여준다. 개나리, 진달래, 목련, 산철쭉에 이어 수수꽃다리 나무의 꽃이 질무렵이면 어느덧 화사한 봄은 가고 초여름에 접어들는데 이 때부터 산딸나무가 눈 같이 하얀 꽃을 송이송이 피어 올려 6월을 환하게 한다.

전년에 자란 가지끝에 옹기종기 생긴 꽃눈이 5월로 접어들면서 부풀기 시작, 6월 중순이 되면 꽃을 싸고 있는 포(苞)가 하얗게 퍼져 흰나비가 떴지어 가지에 앉은 듯 나무전체를 뒤덮는 것이다. 꽃도 청순하게 아름답지만 꽃을 보호하는 포가 새하얗게 먼저 피어 관상효과를 더 높여 준다. 4월의 여왕 목련이 호화롭고 화려하다면 산딸나무의 꽃은 청순하고 고귀한 멋을 풍긴다고 할 수 있다. 딸기처럼 빨갱게 익는 열매는 직경 1.5~2.5cm. 그 안에 여러개의 종자가 들어 있다. 열매가 익을 무렵 불타오르듯 빨갱게 물드는 단풍 또한 빼놓을 수 없는 관상거리

다. 잔뿌리가 많아 옮겨 심어도 이식력이 강해 잘 자라며 병충해가 거의 없어 정원수는 물론 공원수, 가로수로도 훌륭하다.

## 4. 번식법

종자와 삼목 두가지가 다 가능하나 많은 묘목을 얻으려면 종자로 하는 것이 좋다. 9~10월에 채취한 열매를 습기가 있는 곳에 2~3일 부숙시켰다가 과육을 벗겨내고 얻은 종자를 건조시키지 말고 젖은 모래와 섞어 보관하였다가 12월중 노천매장한 후 이른 봄에 파종한다. 씨를 건조시키면 발아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보관시 젖은 모래와 섞어 5°C에 보관해야 한다. 산딸나무의 씨는 1~2년 걸려 싹트는 것도 있으므로 파종상은 마르지 않게 관리해야 완전 후숙이 이루어진다. 또 발아기에 수분이 부족하면 싹이 트다가도 시들어 버리므로 주의를 요한다.

## 5. 그 밖의 용도

목재는 재질이 단단하고 굳으며 무늬가 좋고 나이트가 치밀하여 조각재, 기구재로 이용하며 가을에 먹음직스럽게 익는 새빨간 딸기모양의 열매는 감미로워 날 것으로 먹을 수도 있다. 미국에서도 도입된 꽃색같이 분홍색인 것을 꽃산딸나무 또는 미국산딸나무라 하는데 이 나무는 추위에 견디는 힘이, 건조에 견디는 힘이 약해 중부이북 지역에서는 자라지 않는다.